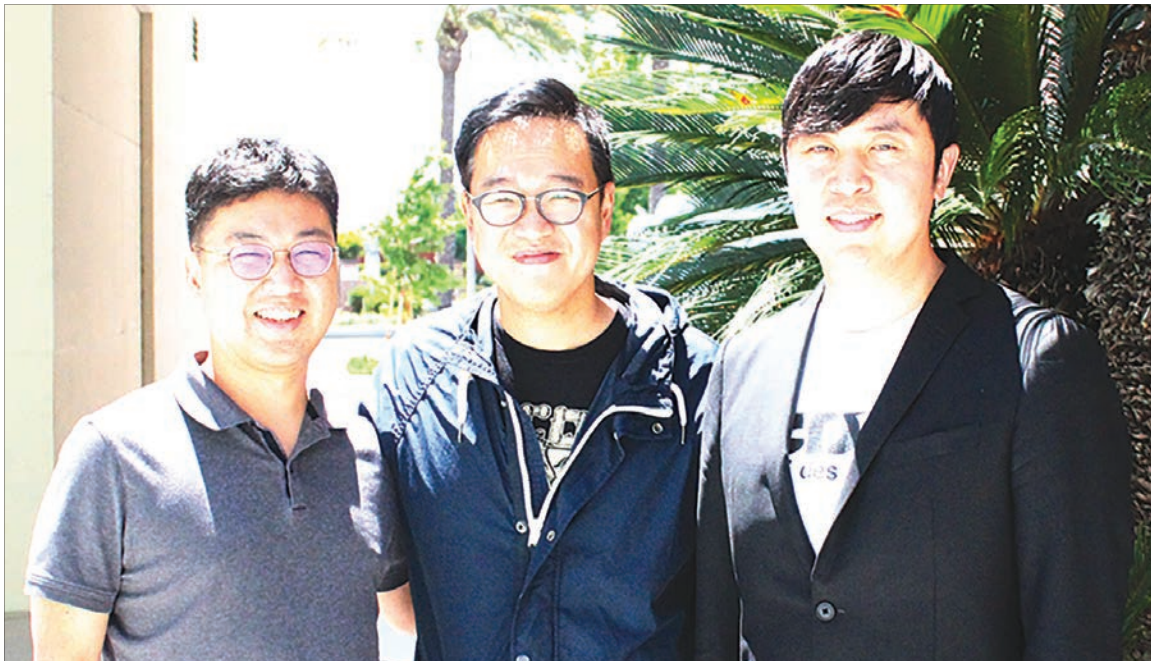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당신이 예배자



좌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준비하는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 심형진 목사, 굿네이버스 김택영 목사

“찬양의 결과는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번 워십 콘서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작지만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와 인기 가스펠 싱어송 라이터 심형진 목사가 이끄

는 워십투게더가 오는 7월 6일(토) 저녁 7시 30분에 부에나 파크에 위치한 '더 소스' 쇼핑몰 (6940 Beach Blvd)에서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개최한다.

그 동안 찬양 콘서트로 여러 차례 남가주 지역 한인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었던 '워십 투게더 콘서트'가 이번에는

특별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의 영역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심형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예배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고민하면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6일(토) 오후 7시 30분 부에나파크 ‘더 소스’ 쇼핑몰

비하게 됐다”며 “예배의 자리임과 동시에 제 3세계 빈곤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의 자리도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심형진 목사는 이번 찬양 콘서트를 계획하면서 지난 달, 굿네이버스 사역지 가운데 한 곳인 과테말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있음'을 보게 됐다”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로 전 세계에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해외 35개 빈곤 국가에서 교육 및 보호 사업, 보건 의료 사업, 식수 및 위생 사업 등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0만 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은 “참

석자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91번과 5번 프리웨이 사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쇼핑몰 '더 소스'는 3층 규모, 연면적 40만㎡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 문화공간이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뿐 아니라 종교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전도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심형진 목사는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예수 님기름', '주의나라가 임할 때' 등의 인지도 높은 50여 곡을 작사, 작곡했으며 20년 가까이 예수전도단에서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캠퍼스 워십의 부흥을 이끌었다. 김동욱 기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제24차 북미주 KCBMC 달라스 대회(총회장 김영균, 준비위원장 서정수)가 지난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달라스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포트워드 메리어트 호텔(Dallas/Fort Worth Airport Marriott)에서 “우리들의 일터사역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럽, 아시아, 한국, 캐나다와 미전역에서 250여 명의 CBMC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달라스에 있는 지회와 남부 연합회를 비롯한 북미주 KCBMC 40개 지회와 유럽지회, 아시아 지회 그리고 한국 지회 등지에서 다른 대회와 달리 각 연합회에서 지회 회원들이 강사가 되어 자기들의 일터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대회였고 내 일터가 사역지임을 확신하고 성경적 경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

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 아래 삶과 일터의 변화를 경험한 회원들이 강사로, 1세 회원들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공의 사례를 나눴다면, 2세 차세대 회원들은 현재 비즈니스가 녹록지 않고 난관에 놓여 있음에도 고난 너무 하나님에 예비하신 축복의 능선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나눴다. 이는 CBMC가 YCBMC 지회 회장에 나서는 가운데 의미가 컸다.



KCBMC 제 24회 달라스 대회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2019년 7월 16일 (화) 오후 8시
WALT DISNEY CONCERT HALL
 (111 S. GRAND AVE., LA, CA 90012)

축제의 무대 본교 교수진들의 연주를 통해 30주년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	감사의 무대 본교를 통해 발굴된 뛰어난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이 참여,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	희망의 무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된 칸타타 “요셉”을 통해 이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연주회의 하이라이트!
--	---	--

Music Director
Im sang Yoon

Professor Esther Yune	Professor Somyung Hwang	Professor Jeff Colella	Conductor Vakh Jongwhi
Conductor Carlene Kim	Conductor Young Jae Kim	Conductor Jungkeun Oh	Conductor Julie Jihyun Cho
Soprano Sunmi Shin	Tenor Wiyoung Oh	Baritone Sangkeun Chang	Composer Youngsuk Chae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 기쁜우리교회에 감사패 전달



기쁜우리교회를 방문해 김경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국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

기독교 방송 선교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힘쓰고 있는 CGNTV(사장 이용경 장로)가 지난 29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를 방문해 방송선교 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쁜우리교회를 방문해 김경진 목사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한국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는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데 기쁜우리교회가 협력해준데 대한 깊은 감사

를 표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김경진 목사는 “인터넷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CGNTV의 방송 선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CGNTV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송되는 CGNTV는 교단 교파를

넘어 1만여 명의 한인선교사들이 위성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위성 이외에도 케이블TV,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미주 CGNTV는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회의 성장을 돕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방송을 하고 있고, 디지털 지상파 채널로 송출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정기 기도회 개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30일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기도회를 열었다.

김태열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기도회는 노주는 장로의 기도 후, 남가주 교협 부회장 김성대 목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부회장 이병상 목사, 평신도분과위원장 황선철 장로, 차세대 분과위원장인 샘 신 목사가 각각 조국의 사회적 화해와 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교회 갱신과 교회와 차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2부 순서로는 이사장 김향로 장로가 간증했으며, 3부에서는 총무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신임 이사 권석기 장로 대한 소개와 7월 향후 사업 소개가 있었다.

남가주 교협은 7월달 사업으로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주지사 부인을 초대해 남가주 한인교회 사모들을 위로 하는 만찬을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한기형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마쳤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남가주 기독교교협은 7월 정기 기도회는 오는 28일(주일)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도회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찬양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기도회

남가주 교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진실 밝힌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전문의 염안섭 원장(현 한국 수동연세요양원)을 초청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동성애 예방 교육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동성애 예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은 의사이자 목회자로 200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호스피스 전문 병원인 수동연세요양원을 설립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를 돌보다 많은 환자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자신의 의료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강연, 각종 집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 예방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친동성애 교육 정책과 법안들이 진행 중이며, 공립학교 친동성애 성교육에 이어 지난 6월 초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에이즈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

의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민권 결의안까지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세미나가 현실과 예방, 동성애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남가주 목회자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 교계적 차원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염 병원장

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동성애 예방 교육 초청 세미나는 오는 7월 6일(토) 오전 6시 10분,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7일(주일) 오후 1시 30분, 팜스프링스한인교회(담임 최승목 목사)와 10일(수)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 213-905-2544 김영환 목사

2019 남가주 밀알선교단 사랑의 캠프 400명 참석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준수 목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에서 모인 약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름다운 경치와 안전한 환경을 지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를 개최했다.

하와이 컨셉으로 준비된 올해 캠프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Ohana in Christ”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Ohana”는 하와이 현지어로 ‘Family’란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의미다.



2019 남가주 밀알선교단 사랑의 캠프

목사)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 팀과 아동 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Milal Got Talent’ 등의 장기 자랑, 교제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저녁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룸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파티를 하고 멋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김영길(감사한인교회 원로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기독교일보 7월 일일관광

기차여행

출발: 7월 13일(토)

\$99

성지 입장료, 및 모든 팁은 불포함

라호야 코우부 바다사자 샌디에고 코로나도 섬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라호야 바다 여행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호텔 델 코로나도



기독교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렉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향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교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Tel.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신학적 교리와 이성에 갇힌 시대, 신앙의 본질 돌아봤다”

극단 이즈키엘 창작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호평



뮤지컬 ‘마루마을’을 선보인 극단 이즈키엘



극단 이즈키엘의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중

극단 이즈키엘(Ezekiel)이 지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엘에이 반스달 극장에서 선보인 창작 뮤지컬 ‘마루마을’이 또 한번의 감동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고자 제작된 뮤지컬 ‘마루마을’은 신학적 교리와 이성에만 갇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했다.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로 충청도 산골 선교에 나선 김 목사가 경험하는 에피소드를 줄거리 삼아 전개되는 뮤지컬 ‘마루마을’은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에 찬 김 목사와 순수한 신앙과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루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임을 깨닫

게 했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실천적 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순박한 마루마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교리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자’는 김 목사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 목사를 존경하고 교회 건축을 돕는다.

이러한 대본의 기본 설정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신학적 교리와 함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소개하며 우리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오래 전 그때 거기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외치는 장님 어린이 귀동이의 믿음을 통해 고착화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신학적 주제는 배우들의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감칠맛 나는 입담을 비롯해 찬송가를 편곡해서 만든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와 춤 등으로 지루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잘 짜인 각본과 연출, 업그레이드 된 배우들의 노래와 춤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뮤지컬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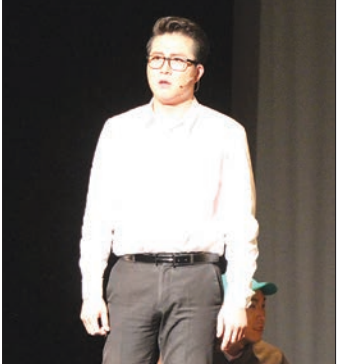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전수경 감독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 예배는 일요일에만 드리는 이벤트로 믿는 종교의 율무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일상의 모든 일들과 만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을 뮤지컬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며 “신앙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루마을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 순 수익금을 항상 가난한 단체에 기부하는 극단 이즈키엘은 이번 공연 순 수익금 역시 멕시코 소노라 오브레곤 도시에 현재 지붕도 없고 쓰러져가는 버려진 집터에서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들의 예배당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말하지 않았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창단 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노력

해온 극단 이즈키엘은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과 거부할 수 없는 ‘진리’, 단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한다. 이즈키엘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연극 전문가들과 전문 배우들이 “관객을 성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크리스천뿐 아니라 넌크리스천에게도 예술 문화에 복음을 입혀 기독교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김 목사 역을 맡은 배우 최원현



삼식 역을 맡은 배우 이해찬과 인숙 역을 맡은 김은진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스틸 컷. 삼식 역을 맡은 배우 이해찬과 윤희 역을 맡은 한예랑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



현대옥은 이래서 좋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식사 현대옥콩나물국밥



“현대옥콩나물국밥에는 웰빙과 힐링이 담겨 있다”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여름의 별미
서리태 콩국수



전주 비빔밥



울계넉 도가니탕

4월 1일부터 OPEN HOURS
월 ~ 금요일 10:30 am ~ 11:00 pm
토요일 07:00 am ~ 11:00 pm

TOGO, 예약 (단체) 문의
213.915.0058

3020 Wilshire Blvd. #119 LA, CA 90010
*주일은 쉽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

마태복음 5: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태복음 5:7

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공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중심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불행을 마음 아파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했기에 의롭다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생고의 불씨가 되던 저주와 불행의 죄악이 하나님이 나를 공홀히 여기심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격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기 가치 기준이 육체의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적 가치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평가받는 가치 기준은 인간의 학벌이나 지식, 출세나 명예, 재산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죽였던 내 영을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10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오만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은 육체의 조건과 외형적인 치장에 중점을 두고 그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 고통과 소망을 잃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지탄과 욕을 듣고 살아온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했습니다.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 같은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나라의 세리들은 동족들에게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을 거둬들여 남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령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심령을 공홀히 여기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기 전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살펴보고 비참하게 썩어져가고 있는 심령을 진심으로 공홀히 여기는 마음 자세가 앞서야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진지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죄악에 찌들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길 처지가 못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하늘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구원 얻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 언급한 바리새인과 같이 월급 타면 십일조 꼬박꼬박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아무개와 같이 자신은 죄도 안 짓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식적 신앙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15-18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비밀을 일깨워 주시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시켜 세워 쓰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인생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까지 양도록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 없는 백성이므로 제쳐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서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490회를 뜻하기보다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자기 영의 가치를 깨닫고 회개한 성도가 용서를 구한다면 이처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한 자를 용서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지옥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8:23-35를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앞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같은 종의 태도에 주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합니다. 그 동관은 임금 앞에서 앞드려 말했던 그 종과 같이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고 간구했지만 욕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 “악한 종이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고는 욕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은 그의 인색하고 옹졸함 때문에 용서받았던 것이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한 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30-33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하셨습니다.

공홀을 입은 사람은 공홀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죄의 울무 가운데서 공홀로 용서함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림으로 타인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공홀의 용서를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신이 용서받은 죄를 무효화시키는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소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지혜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영원한 평화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은퇴 목회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다!

“서북미 한인교회를 간다(8)레이크우드 은목교회”



은퇴 목회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레크우드 은목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담임 목회 사역을 이양한 은퇴 목회자가 갈 만한 교회는 많지 않다. 후임 목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기에 교회 출석을 자제하게 된다. ‘은퇴하면 본 교회를 떠나, 아예 타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평생을 목회에 전념하다가 은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은퇴 당사자인 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은퇴하는 순간 자신이 출석할 교회를 놓고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에 헌신한 은퇴 목회자들이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진 교회가 있다. 워싱턴주 타코마 47th Ave Lakewood에 위치한 은목교회(담임 이해봉 목사)다.

은목교회는 (구)워싱턴 장로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위치한다. 워싱턴 장로교회를 담임하던 이해봉 목사는 은퇴 목회자들이 일선 목회에서 은퇴한 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은퇴한 목회자 부부, 한국이나 타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회자 부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목교회를 세웠다.

주일 설교는 은퇴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전한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시대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도 한다. 은퇴 목회자들의 설교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선교를 향한 여느 현직 사역자 보다 뜨겁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은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나 교회에는 따뜻함이 넘친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달 30일은 안지영 목사(U.M.C. 미국연합감리교회 은퇴목사)가 “요한계시록 20:7-21의 말씀을 인용해, 유럽 7개국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나의 예수님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증거했다.

독일과 이태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Renaissance)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술 역사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을 설명하는데, 신학적 깊이와 개인의 경험이 더해진 수준 높은 설교였다.

안목사는 베니스(영어로 Venice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태리 소몰리에 지역에서의 성당안에 있는 1400년 전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벽화에 대한 설명부터 영국의 대형박물관, 빅토리아 박물관, 자연박물관, 산업박물관, 루브르박물관까지 예로들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는 듯한 생생한 기분이 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루브르박물관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인간의 공포를 사실적으로 다룬 그림들도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죄와 벌과 구원자 예수님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박물관(Van Gogh Museum) 역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의 주된 표현 역시 예수님입니다. 또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심도있는 묵상과 통찰에서 나온 그림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형성, 유럽의 역사와 르네상스 혁명,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바이킹의 항해술발달, 중산층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럽의 문화, 계시의 종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서구 문화의 도덕적 근거 등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좋은 주제들이 한 설교에서 쏟아져 나왔다.

은목교회를 담임하는 이해봉 목사는 “미주의 은퇴 목회자들은 오늘날 이민교회를 일군 영적인 아버지나 다름없다. 이들이 있었기에 미주 한인교회와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눈부신 선교 부흥의 이면에는 은퇴목회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은퇴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에 더 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일평생 하나님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풀원 기자

시애틀 베다니교회 최창효 목사 조부 故 최봉인 장로 “오래 전 양화진 선교사 묘원 돌보았던 한국인”

故 최봉인 장로 손자며느리 최지연 사모의 증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30여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오늘날 유례 없이 부흥한 한국 기독교가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곳들 중 하나다.

그런데 오래 전, 약 60년 동안 이곳을 돌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바로 故 최봉인 장로. 그의 손자며느리인 최지연(시애틀 베다니교회, 셋별한국문화원 원장) 사모에 따르면 고인은 서교동교회 창립 교인들 중 한 명이었고, 초대 장로였다.

그는 16살에 혼자 강릉에서 서울로 와 양화진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친구의 전도로 故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최 씨는 전했다.

특히 그녀에 따르면, 최 장로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가까웠다. 선교사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를 불렀을 정도로 최 장로는 선교사들과 함께 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선교사들 일기에도 그의 이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고.

그가 양화진 묘원을 돌보게 된 계기는 의료선교를 펼쳤던 헤론 선교사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최 장로는 죽은 헤론 선교사를 자신의 집 뒤에 묻었고, 이후 선교사들의 무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선교사들은 그에게 감겸관(묘지기)이라는 직분을 주었다고 최



故 최봉인 장로(오른쪽) ©최지연 사모 제공

씨는 증언했다.

최 씨는 “1900년대 초, 1년에 묘가 약 80개 켜 늘어나자 시할아버지는 하인 소작인들과 함께 묘를 관리하셨다”며 “묘지회에서 돈을 받았으나 일제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 나간 후에도 긴 세월 동안 수 백개의 묘를 믿음으로 관리하셨다”고 했다.

그녀는 “당시는 서양인을 보면 서양 귀신이 나왔다고 도망가던 시절이었다. 그런 때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선교사를 스승으로 생각하셨다”며 “특히 헤론 선교사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자를 돌보는 헌신에 특별한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7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오후 2:00
오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찬양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00 (월-토)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나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7: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32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열린예배) (산헤미)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초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타노 오후 6:30

GO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이부, 유이,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ong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하신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현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588 Alta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죽음을 이긴...”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셨다” 故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 천국환송예배



김영길 장로. ©한동대 제공

故 김영길 전 한동대학교 총장의 천국 환송예배가 2일 아침, 고인이 생전 장로로 섬기던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정진호 장로의 기도, 장로합창단의 특송, 추모영상 상영, 이재훈 목사의 설교, 추모사, 조가,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의 축도로 드렸다.

‘신트로피 드라마’(요한계시록 2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재훈 목사는 “김영길 장로님은 자기의 의와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셨다. 그분의 영향력은 그러한 껍질에서 나왔다”며 “마지막 떠나는 여정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셨다”고 했다.

이 목사가 이날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신트로피 드라마’는 고인이 생전 지은 책의 제목이다. 이 목사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또한 죽어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러나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존재한다. 바로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트로피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장로님은 그것을 믿으셨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셨다.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셨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므로 이 모든 슬픔과 아

픔을 넘어선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우리가 함께 천국 환송의 여정을 걸어갈 바란다”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신의 이별이나 다시 만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추모사 한 한동대 동문 김승환 씨는 “다들 부모하다 이야기 할 때도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며 한동대를 일으키셨다. 언제나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만 반복해서 외치셨다”며 “학교가 돈이 없어서 저당 잡히신 당시의 집을 은퇴해서야 돌려받으셨고, 받으신 강연비도 어렵다고 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주셨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일주일 간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한 마디씩 해주신 총장님은 제 친구에게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무나 무겁고 명확한 말씀”이라며 “늘 당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수고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고인의 아들 김호민 집사(스파크랩 공동대표)는 “아버지는 철저히 ‘오직 예수’ 저는 ‘필요할 때만 예수’의 삶을 산 것 같다”며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이들의 눈물을 보며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는 걸 느낀다.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과, 그리워하던 종민(먼저 세상을 떠난 딸-편집자 주)을 만나실 것이다. 저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故 김영길 장로는 199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0년 가까이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천국환송예배는 오늘(2일) 오후 5시 포항 한동대 그레이스쿨(IGE)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통합과 공흥의 정신 필요해”

은보포럼 목회자 세미나 개최예배 설교



은보포럼 ‘3040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보포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통합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끼리 총질은 안 된다. 주님의 공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27일 중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은보포럼(대표 배창돈 목사) ‘3040 목회자 세미나’ 개최예배 설교에서 “육한 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목회는 공흥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시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목사는 “마음이 여러이고, 겉도 많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육 목사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두 단어로 정리가 되었다”고 했다. 이 목사가 말한 “이번 사건”은 최근 있었던 소위 ‘부목사 설교 논란’으로 보인다.

그는 “두 단어는 첫 째, 공흥이었다. 육한 흠 목사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 한 영혼에 마음을 두었다”며 “계속 되뇌었던 단어는 통합이다. 인간적으로 우리

끼리 총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포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도 골리앗을 이길지 말지”라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설교 좀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목회 현장에서 참 유익한 것이 제자훈련”이라며 “성도에게도 제자훈련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도를 연단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초 창립한 은보포럼이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28일까지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선 대표 배창돈 목사(평택대광교회)를 비롯해 박정근 목사(영안교회), 김병호 목사(대림교회), 전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한복합 회장), 김원배 목사(빛고를 평화포럼 원장)가 강사로 나섰다. 폐회예배 설교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전했다.

김진영 기자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오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서 오전 9:30(목)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8: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c.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북한 고문 실태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로...”

VOA, 국제 고문의 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탈북민 인터뷰



수감 중인 북한 여성과 감시관의 모습. ©휴먼라이츠워치 제공

미국의소리(VOA)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고문 실태를 보도했다.

탈북민 김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전해들은 고문의 실태를 증언했다. 김 씨는 “가만히 앉은 자세로 몇 시간씩 있게 한다.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가만히 있기가 매우 힘든데,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 등으로 때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서 발을 들게 하고, 그 위에 의자 같은 것을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12살 어린이에게 족쇄를 채워 매달아 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인 구타라든가 감옥에 들어가 맞고 나온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목격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 의식이 너무 낮아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기지 않는 채 그냥 감수하고 있다.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고문과 질병, 굶주림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이 사망했다는 탈북민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한다”고 말했다. 키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해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고문 등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고문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GBT에 대한 美 젊은 세대들 호감도 줄어

미국의 젊은이들과 밀레니얼 세대들의 LGBT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친동성애단체인 GLAAD의 요청으로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he Accelerating Acceptance’보고서에 따르면, LGBT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이들의 수용성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LGBT 수용에 관한 미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여론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34세의 젊은이들이 LGBT에 대한 호감이 줄어든 유일한 세대였다. 젊은 응답자 중 LGBT가 ‘다소’ 또는 ‘매우’ 편안하다고 답한 이들은 45%였

으며, 이는 2017년 53%와 2016년 63%보다 줄어든 수치다. 또 젊은 응답자 중 LGBT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016년 62%, 2017년 40%에서 2018년에는 35%로 줄었다. 이와 관련, GLAAD의 사라 케이트 엘리스 회장은 보고서에서 “스스로 LGBT라고 답한 젊은이들의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 LGBT가 아닌 젊은이들 가운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젊은 응답자 중 39%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LGBT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젊은 응답자 중 33%는 LGBT 선생님이 있어서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25%보다 증가한 수치다.

벤 카슨 美 장관 공적영역에서 하나님 밀어내는 것, 매우 잘못

벤 카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것’ 미국인들의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카슨 장관은 미국의 복음주의 민간단체 신앙과자유연합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연례회의 ‘로드 투 매저리티’(Road to Majority Conference)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미국이 유대-기독교적 원칙과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원칙을 지켜야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이 자유의 땅에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밝혀 온 카슨 대표는 “처음 공직을 맡았을 때, 사람들은 내게 ‘신앙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신앙)은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고 말한다. 수 많은 법정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동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는 문



벤 카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구가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설립할 당시의 문서에, 우리의 맹세에, 우리의 법정에, 우리의 돈에 이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카슨 대표는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때가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때”라고 말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벤 카슨은 트럼프에 의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임명됐다. 신경외과 의사 시절 심장동이 분리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켜 큰 주목을 받았었다.

분노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징기스 칸 (1162~1227)은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매를 언제나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바위 위에서 흘러 내리는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종재기를 엮지됩니다. 목이 말라서 다시 물을 마시려는데 또 매가 엮질러 버렸습니다. 일국의 칸(Khan, 지배자)이며, 부하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 할 때마다 매가 계속해서엮질러버리니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다시 엮이지라 결국 칼로 매를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바위 위로 올라가 보니 맹독사가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 물을먹었다라면 본인이 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엮질러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돌아와 금으로 만든 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쪽 날개에는 ‘분노하여 판단을 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날개에는 ‘좀 잘못해도 벼은 벼이다.’라고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분노사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인공이 된듯한 느낌이 옵니다. 화낸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은 마치 나의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되며 스스로 스타가 된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는 남을 더럽히기 전에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이건 분노는 자신을 죽이고 주변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1688년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게 하는데,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은혜를 부어주셔서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의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 프랑스에서는1789년부터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분노에 의해 ‘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파리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를 세우고 루이 16세를 비롯한 3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에서는 약 200년 이상 쿠데타와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분노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분노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옛날 한국의 학교에서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분노의 표어를 외치고 쳐다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분노가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조금만 신앙노선이 다른 사람을 보면 마녀 사냥하듯이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내부총질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서로 연합이 잘 안 됩니다.

분노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쉽게 쏟아버리게 합니다. 모세는 사역 말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과 같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멋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터져 나오니까 백성들은 “역시 모세는 능력의 종이야” “위대한 영웅이야.” 이런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다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 이상 그렇게 수고해 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로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구원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지상의 마지막 날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채찍질의 무서운 수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營門, camp) 밖으로 나가십니다. 고통의 극단은 바로 그곳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심으로 겪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낳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생애의 마지막을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궁궐에서나 성전에서 마무리하지시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병영(兵營, barrack)에서 심문과 매질을 당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특하게도 우리가 성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야를 성문 밖 골고다로 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일에 드러지는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회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제사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숫염소의 흘린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피는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좌(施恩座, mercy seat)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남은 부분, 즉 살과 가죽과 내장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태워지고 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고통이 서린 곳은 십자가상이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말이며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도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장 큰 지도자이자 유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윤

리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윤리이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윤리입니다. 궁극적인 계시이자 궁극적인 교사요, 우리 믿음의 유일한 참시자요 완성자 되시며 사도적 삶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먼저 우리가 더 이상 궁궐과 성전의 영광으로 만족하여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전의 구습을 따르지 않고, 지난날의 비전과 욕망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입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께 금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고, 나도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과 보좌를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마 4:19)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라 먼저 영문 밖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고난 신앙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뿐입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꽃밭에 들어가 발로 밟는다거나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붓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망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저절로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생활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잡초가 우거지고 생기가 사라져서 스스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기능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장기간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약해 집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몸전체가 쇠약해



박 성 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약화시켜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 따로 놓게 된다면 결국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복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 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Qualification)

1.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 (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신 분.
2.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 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한신 분.

■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이력서 (사진포함)
본인 / 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 (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추천과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 제출처

온라인 :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pcpsc>
우 편 :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 제출기한 (Due date)

2019년 7월 20일(토)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dkpcpsc@gmail.com](mailto:dkpcpsc@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합도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노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없으며 빠른수복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인지율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아연의 중요성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승기박사는 아연이 한국세대의 당당사와 혈당 제세로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근거를 둔 최첨단 생약성제인 Cyclo-Z (Pro-Z)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장부 혈액 순환인 US VA Hospital에서 4년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0%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5 and #5,997,908

■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승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극대화되고 증가됩니다. 이제 혈당만 안정화(Zn) Metabolism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승기박사는 아연이 한국세대의 당당사와 혈당 제세로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근거를 둔 최첨단 생약성제인 Cyclo-Z (Pro-Z)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장부 혈액 순환인 US VA Hospital에서 4년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0%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5 and #5,997,908

아시나요?

당사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당화혈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이면


43%(아지혈당) 57% 당뇨병환자들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환자를 방정할 변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므로 당기치료를 할수록 혈당이 조절되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43% 당뇨환자 1%만 줄이면	37% 당뇨병환자	21% 당뇨병환자	14% 당뇨병환자	12% 당뇨병환자
------------------	-----------	-----------	-----------	-----------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환자를 방정할 변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므로 당기치료를 할수록 혈당이 조절되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1병 \$69 + Tax
3병 \$180 + Tax
6병 \$350 + Tax



백신은 아연의 흡수
당사 제품을 아연의 흡수율에 따라 100% 흡수율에 도달합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Classified AD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323.265.0244



“주일학교 부흥의 베이스 ‘ABCD’ 는...”

교회학교 위기, 믿음 심지 못하는 것
시험기간 교회 결석? 1-4계명 위반
믿음 심기면, 아이들 자발적 전도해

6월 24일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교회(담임 김의식 목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 목사·사모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에서는 이정현 목사(군산드림교회, 예장 합동)가 ‘교회학교 부흥의 베이스’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군산드림교회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부흥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군산드림교회는 전국 2천명 이상 출석 교회의 중 교회학교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 수가 1백명에서 16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정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숫자보다,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경우 사역자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진정한 이유”라며 “사실 크리스천 학생 대부분은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제대로 터치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회학교는 믿음에 대해 대부분 두 가지 모습에 보인다. 먼저 학생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지만, 그 믿음을 터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 목사는 “담당 교역자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전달 방식을 고집한 다거나, 그간 교육부서의 전통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라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시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지만, 그 교육 방법은 시대마다 변해야 한다. 이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교육 방법론이 현장에 남아있고, 교사들의 가르치는 모습에도 참신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믿음의 부분은 거의 포기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걸맞은 상품들에만 많은 투

자를 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믿음 성장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두고,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도록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며 “고가의 상품이나 유명 연예인을 통해 학생들이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기대치만 커져서 다음에는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시험기간이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십계명 1-4계명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것도 바로잡지 못하는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강단에서부터 시험기간과 믿음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부흥의 베이스 ABCD’를 제시했다.

첫째는 ‘예배(Adoration)’이다. 그는 “영적 성장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저희 교회 예배는 재미있다.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다.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하면, 설교를 들리게 할 수 있다. 요즘 20분 유튜브 보라고 하면 지루해서 안 보니, 3-5분 요약판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한 가지 테마에 2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아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해해 주고 해아려 주길 원한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그 마음만 알아줘도, 설교가 들어가고 분반공부가 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둘째는 ‘훈련(Bible & Prayer)’

이다. 그는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 준비팀 아이들 100명은 시험기간이라도 학원에 안 가고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기도의 양만큼 예배의 질이 달라지더라”며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 큐티를 강조해야 한다. 훈련하면 변화된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수련회 저녁집회 1시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셋째는 ‘전도(Crying out)’이다. 이에 대해 “전도에 앞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전제조건이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한다. 믿음이 심기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드는 공회전”이라고 했다.

이정현 목사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다. 전도의 동력은 담당 교역자가 먼저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전도에 대해 너무 식상해한다”며 “전도하면 학교에서 싫어한다거나 욕을 먹는다는데, 2천년 기독교 역사상 전도를 좋아한 시대가 있었는가? 핍박받고 욕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학교를 자주 찾아가다. 새신자들의 3/4는 이 학교 심방을 통해 나온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열어주셨다”며 “어떻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냐고는 묻지 말아달라. 해 보지도 않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꼭 학교로 들어가야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결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Delight)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나를 환영해주는 교회’가 1등이었다. 저는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들어올 때 ‘하이-파이브’를 해 준다”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죄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저희 교회학교에는 학년별 ‘일진’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도를 정말 잘 한다”고 했다.

2위는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다. 이에 대해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존중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혼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적 교육방법은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정현 목사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빙산’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빙산의 일각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 하지만 빙산 아래가 훨씬 큰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볼 때,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승부할 수 있다. 꼭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연령은 상관없다”며 “내가 하려고 하니깐 안 되는 것이다. 계속 하다 보면, 빙산이 조금씩 솟아 오르듯 믿음도 올라올 것”이라고 사역자들을 격려했다.

이정현 목사는 청소년 사역자료실(Bank of Youth Ministry, www.bym.or.kr)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나누고 있으며,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베이스>도 작년에 펴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모 집 과 정

학사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교상담학사
기독교교육학사

박사과정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교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석사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교상담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 준 목사

“한국교회와 조국 잘 돼야,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도 잘 돼”

지난 6월 10-13일 한신교회(담임 강응규 목사)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총장 제임스 맥도날드, SFTS)이 주최하는 제13회 신학심포지엄(목회자 연장교육)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됐다.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 준牧사는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대해 강의했으며 인터뷰는 〈바이블 백신〉의 저자인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가 진행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모범적인 목회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민사회 목회의 흐름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0-90년대 이민의 문이 열리고, 초기 유학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주 사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한국도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한인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유학의 경우도 한국에 대한학교와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교회가 전반적으로 숫자적인 성장이 어렵고, 이제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돌파구라고 하면 자녀 세대인데, 그래서 영어권 2세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한인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다음은 어떤 단계일까? 이런 위기 상황속에서도 사그러지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고민이 치열합니다. 대체로 결국 한인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민족 교회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민교회의 80%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머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20%의 교회가 다음을 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권 준 목사는 LA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탈봇 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온누리교회 북부사와 두란노서원 원목을 거쳐 시애틀형제교회 담임으로서 교회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민교회에 곧바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예전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도 이민사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만,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거의 실시간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돼야, 조국이 잘 돼야 이민교회와 이민 사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 합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이민목회의 의미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흩어진 또는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른 이방의 땅에 뿌리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땅, 다른 자리에 뿌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창 12:1-3).

우리는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킹덤 드림(Kingdom Dream)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죠. 결국 1세대의 어려움과 시련을 넘어, 2세대가 성장하여

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소망이자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한인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의 위상이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커서 인내하고 교회를 지키는 버티는 이들이 있지만, 이민자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갈라지고 분열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인사회에서 교회는 그다지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민이나 유학을 오면 꼭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거나,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했지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교회에 먼저 물어보고 인원 동원을 위한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가 발달하면서, 저마다 관심사에 따라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더 이상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인 커뮤니티도 이민교회를 별로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이 지역에 종영사가 부임하면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영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적어도 영사의 부인은 교회에 나왔죠. 교회 행

사가 있으면 영사가 와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사 중에서도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은 이민 사회로 들어오는 30대를 보면,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라는 점입니다. 큰 맥이 하나 끊긴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입시준비를 하고, 주말에도 도서관과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교회에 발을 디딜 겨유나 기회가 없었던 이들입니다.”

—미국교회의 트렌드를 볼 때, 한국교회가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더 이상 트렌드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이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역량도 성장했지요.

다만,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좀 더 힘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느끼는 것이 ‘갑질 문화’입니다. 여전히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아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삶에서 더욱 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가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도입하는 것보다, 교회 본연의 모습

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한 축이 목사이겠지요. 예수님의 섬기는 마인드를 잘 구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세대 통합예배’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고, 꼭 구현해야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요즘 교회가 세대별로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부가 뭘 하는지, 유년주일학교에서 뭘 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청년들이 부서를 떠날 때쯤 되면, 청년부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고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를 중요하게 보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는 이중 언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 하나는, 전 세대가 같은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일에 그 교재 본문으로 설교하고, 교회학교도 같은 교재로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나눕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신학생 말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유년, 중고등부를 끌고 갈 리더입니다. 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졌다는 이들이 나오면, 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키워내야 합니다. 굳이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이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우리에게 투자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여름성경 학교 행사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저 헌금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역자들은 주차봉을 들고 다 주차장에 나와 안내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 힘을 얻고,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담임목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조회원
- 기독교총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 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수) 접수시 \$5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운 선교사)
회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 1회▶7월 30일까지 \$500, 2회▶8월 30일까지 \$500, 3회▶출발 7일전 \$1,000
-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돔, 주기도문 교회, 벳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레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쿨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툼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스십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회,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혼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라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돌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THESOURCE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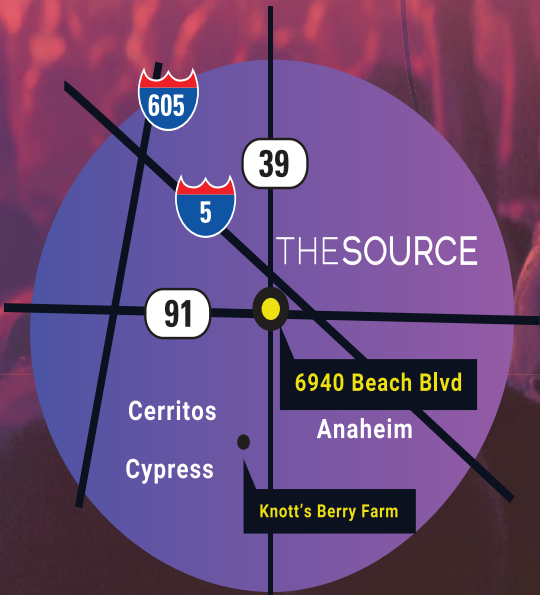
www.goodneighbors.us

&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WORSHIP
TOGETHER

심형진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예수뎡기를” “멈출 수 없네”의 작사·작곡자.
전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 리더. 전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리더. 현 얼바인 온누리교회 예배담당

7.6 (토) 저녁 7시30분 at THE SOURCE
부에나파크 CGV, 3층 야외특설무대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90621
문의 : 877.499.9898



심형진의 워십투게더는 세상 한 가운데서의 예배를 꿈꾸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